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제조업, 원가 부담 불구 9개월 계속 성장… 주문 견조
- Bloomberg: Mpls 연은 총재 "물가 잡으려면 금리 얼마나 올려야 예측 어려워"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7월 이래 최저…19만 7천

[미국 금융]
- WSJ: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5.34% 돌파… 2002년 이후 최고치

[중동 전쟁]
- Bloomberg: 트럼프 "중간선거 후 이란 폭격 강화 가능"
- WSJ: 미국의 제재 압박에 이란 유조선 수십 척 아시아 해상에 고립

[오일]
- WSJ: 호르무즈 수송 회복에도 원유 공급난 여전

[한·일 대미 투자]
- Bloomberg: 한·일, 대미 관세 대응해 9천억불 투자… 에너지·조선 집중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미 기업 9월 감원 건수, 2022년 이후 최저… 채용은 신중
- CNBC:월마트, '발광(LED) 디지털 라벨' 도입… 상품 찾기 쉽다
- TechCrunch: 구글, 최강 AI 'Gemini 4 Argon' 공개… 보안·코딩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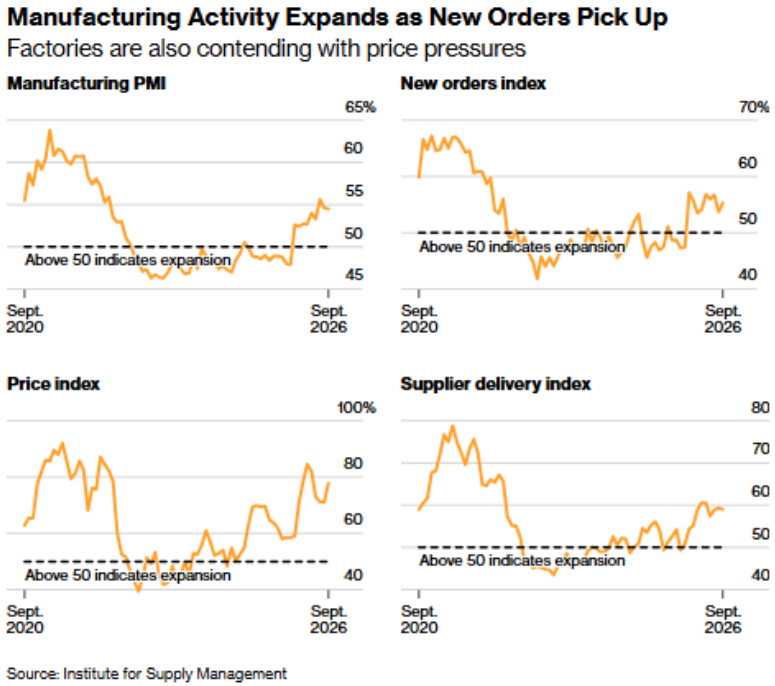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Manufacturing Expansion Continues Despite Mounting Costs
미 제조업, 원가 부담 불구 9개월 계속 성장… 주문 견조

- 미국 제조업 활동이 물류 지연과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 미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제조업 지수는 54.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기준선(50)을 웃돌며 2022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확장 국면을 지속했다.
- 신규 주문 지수가 상승하고 미처리 주문(밀린 주문) 지수가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생산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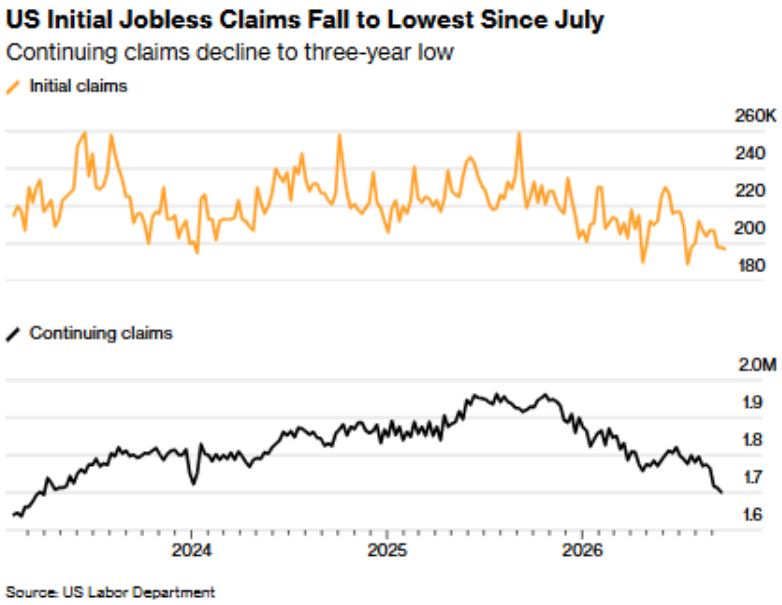
Bloomberg: Fed’s Kashkari Says He Doesn’t Know How High Rates Must Go
Mpls 연은 총재 "물가 잡으려면 금리 얼마나 올려야 예측 어려워"

- 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그는 5년간 이어진 공급망 충격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연준의 책임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그는 미국 경제가 광범위한 성장세를 보이며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Slip to 197,000, Lowest Since July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7월 이래 최저…19만 7천건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7월 이후 최저로 떨어지고,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건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시장을 나타냈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9월 26일 마감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전주 대비 1천건 줄어든 19만 7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20만 건)를 밑돌았다. 실업수당을 계속 받는 인원인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도 9월 19일 기준 1백70만 건으로 1만 1천건 감소해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다.
- 신규 청구가 역사적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견조한 경제 속에서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도 신중한 편이다.



기사

[미국 금융]

WSJ: US Benchmark Yield Hits Highest Since 2002 as Bonds Sell Off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5.34% 돌파… 2002년 이후 최고치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잠시 2007년 고점을 넘어 5.34%까지 치솟으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5.325%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개월간 이어진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며 인플레 우려가 커지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여기에 정부의 막대한 채권 발행과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수요까지 겹치며 대출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 전문가들은 "정부 채권 금리의 상승은 구조적 장기 변화"라며 "금융 시장이 이러한 '뉴 노멀(New Normal)'을 밟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Trump Says Ramped Up Bombing of Iran 'Possible' After Midterms
트럼프 "중간선거 후 이란 폭격 강화 가능"

- 트럼프가 8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 그는 최근 공화당의 의회 과반 유지가 위태로운 중간선거까지 이란이 외교적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그는 이란 항구 봉쇄 해제와 석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는 이란의 최근 제안을 거절했다.
- 트럼프는 오늘 목요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 폭격을 재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기사

WSJ: U.S. Pressure Campaign Leaves Iranian Tankers Stranded in Asian Waters
미국의 제재 압박에 이란 유조선 수십 척 아시아 해상에 고립

- 미국의 강력한 압박 정책으로 이란 및 이란 연계 유조선 수십 척이 아시아 해상에서 식량과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 미 당국은 스리랑카 정부를 압박해 현지 선박들이 고립된 이란 유조선과 선원들에게 식량, 연료, 식수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 또한 미국 측은 현지 서비스 업체들이 제재 대상 선박을 지원할 경우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오일]

WSJ: More Oil Moves Through Hormuz, but Supply Still Looks Tight
호르무즈 수송 회복에도 원유 공급난 여전

- 중동 원유의 수송이 회복세에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올라 9월 한 달간 8% 상승했다.
- 실물 거래되는 현물 브렌트유는 121달러에 마감해 심각한 실물 부족을 보여줬다. HSBC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행 증가에도 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중동 수출 회복이 시장 정상화를 뜻하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 지난 6~7월 중동 수출이 분쟁 전 수준에 다다랐을 땐 선물이 7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엔 100달러를 웃돈다.

기사

[한·일 대미 투자]

Bloomberg: How Japan and South Korea Plan to Invest $900 Billion in
한·일, 대미 관세 대응해 9천억불 투자… 에너지·조선 집중

- 한국과 일본이 15% 대미 관세 상한선 대가로 총 9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 나섰다.
- 한국(3,500억 달러)은 에너지 분야에 2,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원전 8기 건설 및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검토하는 '프로젝트 파워'(1,200억 달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텍사스 가스발전소(22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54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남아있는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MASGA)에 투입된다.
- 일본(5,500억 달러)은 정부 보증 금융 중심으로 오하이오 가스·광물 사업(360억 달러)과 테네시·알라바마 원전 및 가스발전(730억 달러) 등에 자금을 집행한다.
- 한국의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와 수익성 사업에 투자한다는 안전장치를 두었으나, 자금 유출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S Companies Announce Fewest Job Cuts for a September Since 2022
미 기업 9월 감원 건수, 2022년 이후 최저… 채용은 신중

- 미국 기업들의 9월 감원 계획 발표가 4만 3,2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줄어들며 2022년 이후 9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 반면 기업들의 9월 채용 계획 인원은 9만 787명에 그쳐 2011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 올해 전체 채용 계획은 2025년 동기 대비 3% 늘었으나, 각종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

CNBC: Walmart is using light-up digital shelf labels to help shoppers and employees find items
월마트, '발광(LED) 디지털 라벨' 도입… 상품 찾기 쉽다

- 월마트가 자사 앱과 연동해 불빛이 들어오는 '발광(LED) 전자 표시기(DSL)'를 전 매장에 확대 도입한다.
- 고객이 앱으로 제품을 찾아 버튼을 누르면 진열대 가격표 LED가 반짝여 위치를 즉시 알려준다. 직원용 '재고 보충' 및 '온라인 주문 픽업' 조명 기능도 함께 적용돼 매장 관리와 포장 속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월마트는 연말까지 미국 전 매장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매장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며, 월마트는 개인정보 수집 용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

TechCrunch: Google releases Gemini 4 Argon, called its most powerful model yet
구글, 최강 AI 'Gemini 4 Argon' 공개… 보안·코딩 특화

- 구글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율 탐지·패치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Gemini 4 Argon'을 공개했다.
- 일반 대화 및 텍스트 처리에 치중했던 지난번 제품과는 달리, Argon은 보안 구멍을 스스로 메우는 자율 방어 기능과 '페어윈드(Fairwind)' 프로그램을 통한 보안 안전을 강화한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 또한 코딩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구글 내부의 프로그램 오류 등을 잡아주고, 대용량 영상과 복잡한 차트를 정밀 해석하는 멀티모달 시각 분석력도 한층 발전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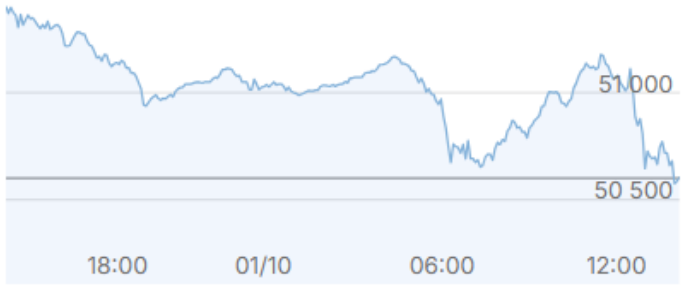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협상 난항 및 유가 급등… 중동 원유 공급망 복구 진통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평화 협상 과정에서 '7일 신뢰구축안' 답변을 주고받았으나 핵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카타르의 중재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에 대한 '사실상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선박 공격이 이어지며 유조선 2척이 추가 피격됐고, 소말리아 해적이 납치 유조선에서 선원 5명을 살해하는 등 해상 안보 위협이 가중됐다.
-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해 얀부 항에서 원유 선적을 재개함에 따라, 중동 원유 수출량은 전쟁 전 대비 98%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그럼에도 협상 교착과 수급 불안이 반영되어 국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했다.
-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컨테이너 해운 일정 신뢰도는 202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러시아와 미국은 연료난에 대응해 경유 수출 금지를 연장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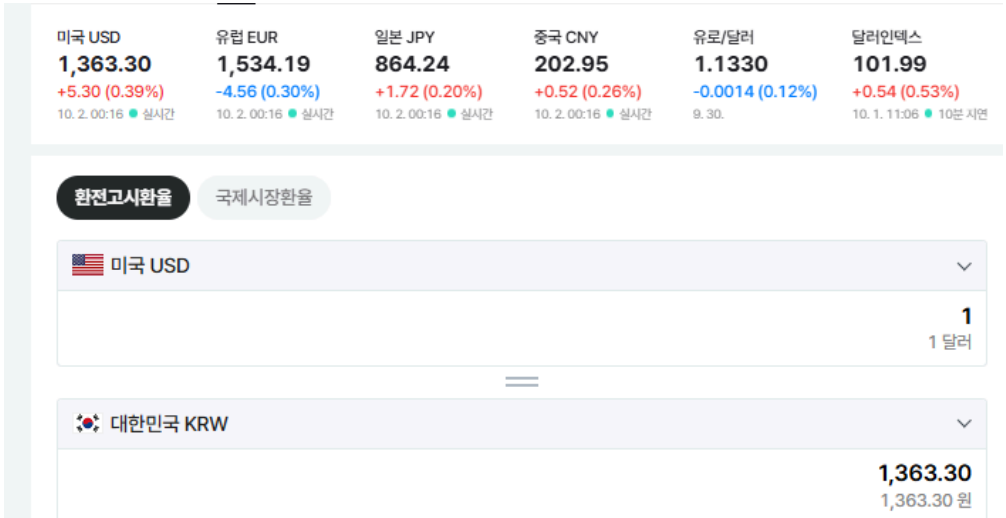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0,613.60	-295.2	-0.58%
US 500	7,632.80	-19.2	-0.25%
Dow Jones	50,563.84	-342.21	-0.67%
S&P 500	7,633.04	-18.50	-0.24%
Nasdaq	26,815.27	-45.80	-0.17%
S&P 500 VIX	17.19	+0.85	+5.20%
Dollar Index	101.73	+0.539	+0.53%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32	5.640	0.006
10-Year Note	4.625	1/32	5.281	-0.010
7-Year Note	5	23/32	5.167	-0.025
5-Year Note	5	2/32	5.049	-0.049
3-Year Note	4.375	2/32	4.944	-0.063
2-Year Note	4.75	2/32	4.827	-0.081
1-Year Bill	0	-2/32	4.474	-0.071
6-Month Bill	0	-1/32	4.303	-0.037
3-Month Bill	0	-1/32	4.097	-0.026
1-Month Bill	0	-1/32	3.883	-0.021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